

여성 지식인의 외부자 되기와 그 임계(臨界)

: 손장순 작품을 중심으로

김우영*

차례

1. 손장순과 그의 시대: '아프레 곁'의 박정희 시대 살아가기
2. 아메리카니즘과 유럽, '넌다'의 교양
3. '속물'의 세계에서 외부자(아웃사이더)되기
4. 한국 밖에서 한국 안 바라보기, 한국 안에서 한국 밖 상상 하기
5. 손장순과 그의 시대 그 이후

<국문초록>

본고는 '박정희 시대'의 문학장 안에서 손장순이라는 작가가 보이는 이채로운 행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1960-1970년대에 발표된 손장순의 작품 『한국인』(1966), 『세화의 城』(1971), 「우울한 빠리」(1976)를 비롯하여 1974년 해외 기행과 파리 체류 경험이 담긴, 여행 기행문, 산문 등이 본고에서 논의되는 대상 작품들이다. 통속소설과 세태소설로 저평가되었던 이들 작품들은 사실 산업화 이전의 한국사회의 일면들을 묘파해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시기 손장순은 한국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으나 사회 주류층으로의 편입을 갈망하는 지식인들을 통해 이 시기 한국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폭넓게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물들을 포함한 작품 속 상당수의 인물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자 유학 등 해외 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대 박정희 시대를 우회하는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작품 속에서 고평

*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되는 인물들은 특히 당대의 ‘속물’ 되기에 맞서 ‘교양’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형상화되는데 외양과 내면 모두를 갖추고 외부자적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댄디’의 개념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핵심어 : 손장순, 외부자, 아웃사이더, 해외기행, 박정희 시대, 아메리카니즘, 교양, 프랑스 문학, 댄디

1. 손장순과 그의 시대: ‘아프레 걸’의 박정희 시대 살아가기

손장순(1935-2014)은 그의 소설 『세화의 城』(『조선일보』, 1971.6-연재)의 초반부에서 강변도로에서 일어난 여인 살해사건에 대해 서술한다. 미모의 젊은 여성이 자가용 안에서 총을 맞고 피살된 채 발견되었고, 그녀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의 운전사인 친오빠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쇼킹한 사건”으로 언급되는 이 장면은 1970년 3월 선운각 출신 고급 콜걸이었던 ‘정인숙’이 피살된 실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작품 속에 삽입된 ‘정인숙 사건’은 단지 실제 일어난 사회상을 보여주는 삽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회 지도층 인사인 『세화의 城』 속 등장인물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징후적 장면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작품 전체의 전개 양상을 암시함과 동시에 ‘박정희 시대’라고 명명되는 시기의 가장 결정적 부분을 적시(摘示)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화의 城』은 ‘요정 정치’와 국가 차원의 경제 개발 드라이브가 막 발현되기 시작한 ‘박정희 시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활약과 몰락 과정을 다소 통속성 짙은 색채로 그려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

1) 박정희 시대를 징후적으로 포착하고 있었음은 당시 이 작품에 쏟아진 권력층(?)의 비상한 관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연재 당시 영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가 작가를 청와대로 불러 정권비판적인 서술을 피해달라 했다는 것이다. 손장순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세화의 성』은 도입부가 여교수이자 장관 부인이 조건

정인숙 사건이 삽입된 데서 드러나듯 『세화의 城』은 연재되던 1971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사건들을 작품 속에서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²⁾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단지 작품 속 배경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주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야당 당수, 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장관 등 등장인물들의 생활과 운명에 말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르주아의 중심부’³⁾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화의 城』은 ‘민족 민중주의’와 ‘소시민’론 등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던 당시 문학장 속에서 이채를 띠고 있다. 오히려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연장선에서 그 발전 모델로 이해될 여지가 다분하다. 작가가 『세화의 城』 이전에 발표한 대표작인 『한국인』(『현대문학』, 1966.1-1967.7) 또한 『세화의 城』의 문체 의식과 여러 부분에서 겹쳐지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 작가의 문체 의식을 짐작케 한다. 문학장에서 여성 작가들이 대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해 내는 것으로 주목받던 것과 비교할 때, 다소 표면적 차원이기는 하나 당대 사회 전반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려고 시도한 손장순의 면모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위 ‘박정희 시대’의 문학장 안에서 손장순이라는 작가가 보이는 이채로운 행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당 작품은 1960-1970 년대에 발표된 『한국인』, 『세화의 城』, 「우울한 빠리 (『현대문학』, 1976.1)를 비롯하여 「나의 미국 만유기」 등 여행 기행문, 산문 등이 그 대상이

을 떠든 순간 강변도로에서 일어난 여인 살인 사건이 눈길을 끄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당시 정권을 너무 비판하는 작가의 의도를 회유하려고 나를 청와대에 초청한 것이다. 육여사와의 대담은 장장 4시간 이상 걸렸다. 오후 4시부터 저녁 식사가 끝난 8시가 되어도 나는 육여사에게 곡필을 약속하지 않았다.” 손장순 문학전집 12, 『이룰 수 없는 서원』, 푸른사상, 2009, 328쪽.

2) 이에 대해 손장순은 “나의 심기를 언짢게 한 것은 『세화의 성』이 마치 정인숙을 테마로 해서 쓴 것이며 외압을 받아서 남자 주인공이 애초의 의도와 달리 새마을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위의 책, 96쪽.

3) 김진우, 「김승옥이 볼 수 없었던 그것」, 방민호 외 공저,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될 것이다. 1935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2014년 타계한 손장순은 1958년 1월 「입상」으로 『현대문학』에 추천 등단한 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계속 해왔다. ‘여성문학’, ‘산악소설’, ‘도시문학’ 등 여러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되었던 그의 작품은 그러나 1960-1970년대 문단의 주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인』이나 『세화의 城』 또한 대중적 관심과 달리 본격 문학장에서는 그다지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들 작품들이 갖는 통속적, 멜로드라마적 속성을 본격문학 장르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짐작된다. 덧붙여 이와 관련해 1960-1970년대 창작된 그의 작품을 읽어내는 적절한 방법론이 없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로 지적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손장순 작품 속 주인공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았을 때 일반인들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은 작품이 공감의 영역이 아니라, 짐작과 소문의 영역(신문 속 보도 내용과 비슷)이었음을 의미한다. ‘결혼’과 ‘애정’이라는 인류 보편사를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현직 장관과 그의 여식, 국회의원 보좌관, 교수 등 상류층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아도 작품 속 인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⁴⁾ 작가 스스로는 “어머니가 줌 고급 양반 출신”이셨을 뿐 작품 속 인물들처럼 상류층은 아니라고 고백한 바 있다.⁵⁾ 그러나 그 자신이 1935년 출생으로 당시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불문과를 거쳐 대학에 자리를 잡고 1961년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 남성과의 결혼 후 이혼한 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험들이 작품에 녹아들었으리라 짐작할 때, 이 또한 당시 평

4) 한편으로 최근 TV 드라마 속 상류층의 생활양식을 보는 시청자들이 동일시보다는 선망의 시선을 보인다고 할 때, 이 시기 손장순의 작품을 읽는 독자 또한 동일시 보다는 엇보기의 측면에서 이 작품을 즐겼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5) “내 문학의 힘은 열정과 솔직함이다”(인터뷰),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64쪽.

범한 여성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어느 집단이나 경향에 소속되기보다 개별적 주체와 경계인의 위치에 있기를 자처한 그녀의 성향 또한 이같은 상황을 다소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⁶⁾ 장편 위주의 작품 활동을 한 것 또한 한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즉 특정 에펠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던 1960년대 중반부터의 한국문단에서 손장순의 위치는 사뭇 문제적인 지점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본고에서 손장순을 문학사에서 갑자기 돌출(突兀)된 작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사를 돌이켜 볼 때, 손장순 작가 자신과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의 당찬 면모는 일제강점기 신여성 작가들을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다. 또한 손장순의 문학 세계는 전후 ‘실존주의’와 프랑스 문학과 짝은 연관성을 띄고 있으며, 정확히 겹쳐지는 것은 아니나, 아프레겔의 세대적 문제의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⁷⁾ 다만 최근 1960-1970년대를 새롭게 복기하는 과정들의 연장선에서 기존 문학과 문화, 사회사에 존재하는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손장순의 문제작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여성문학사 또한 보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1960-1970년대 손장순 작가 자신과, 작품 속 등장인물들인 지식인 여성들의 외부자 되기와 경계인 의식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⁸⁾ 특히 여성인물들을 비롯하여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고

6) 『한국인』으로 상을 받을 당시, 심사위원이 조연현, 황순원, 곽중호 선생님이어서 작품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른바 ‘보수’진영으로 분류된 것일 수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자신이 굉장히 사회 비판적으로 이들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위의 글, 368쪽.

7) 손장순 문학을 아프레겔과 실존주의의 맥락에서 분석한 글로는, 박진숙, 『아프레겔, 그리고 도저한 실존주의』, 방민호 외 공저, 『아프레겔과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참조.

8) 유희자-희생양이나 성녀-악녀의 이분법적 구도를 탈피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손장순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모습은 흥미롭다.

등교육을 받고 유학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⁹⁾ 당시 새롭
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부각한 대학생을 포함한 지식인 청년들의 의식 구
조에 대해서도 기존에 충분히 논의된 것 같지만 이 또한 특정한 시각만
이 다소 부각되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하다.¹⁰⁾ 따라서 당대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읽어내는 독법만큼이나, (여
성)지식인과 이른바 상류계층의 목소리와 상황을 해석해내는 방법론도
제대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소설로 통칭되는 작품들 또한 보다
섬세하게 읽어 정당한 방법론을 통해 제대로 읽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인』과 『세화의 城』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바, 당대를 살아가던 하위 주체들에게만큼이나, 이른바 지식인과 상류계
층에게도 한국사회는 다른 의미로 닫힌 세계이자 좌절의 공간이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손장순 작
품 속 여성 인물들은 다소 모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에서(대한민국
이란 국가 포함), 가정에서 철저히 외부자 되기를 선택하고자 한다. 물론
그 위치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모두에게 가능한 것도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작가는 이들 인물들의 고투를 자신의 자전적 관점
이 투영된 지식인 여성을 통해 면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2. 아메리카니즘과 유럽, ‘댄디’의 교양

손장순의 작품 『한국인』은 1966년과 1967년에 걸쳐 『현대문학』에 연
재된 작품으로, ‘신희연’이라는 여성인물(Y여고 출신, S대 불문과 졸업생

9) 전소영은 그의 글 『“유학생” 표상, 착종된 현대의 투시도』(방민호 외 공저, 『아프레
게르와 손장순 문학』)에서 ‘유학생’의 표상에 주목한 바 있다. 본고는 전소영의 문
제의식에 동의하면서 문제의식을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10) 이런 맥락에서 김건우가 앞서 그의 글에서 “김승옥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손장순이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지점은 음미해야 할 부분이다.

으로 설정)의 시각을 중심으로 희연의 결혼과 이혼과정을 그리면서 희연을 둘러싼 인물들을 통해 당대 한국사회를 묘사해내고 있다. 특이할 점은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중 상당수가 유학생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희연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 이혼하고, 자기파멸로 치닫고 마는 인물인 ‘강문휘’는 미국 유학생 출신이며, 희연과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 친구 ‘쑤 한’(한영주) 또한 미국 유학생 출신으로 그려진다.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일할 직장이 없는 심각한 고민, 미국에 있는 한국의 술한 영재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하는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닌가 그들은 그곳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 국제 결혼까지 사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그들이 조국을 배반했다고 해야 할지, 조국이 그들을 버렸다고 해야 할지. 그나마 일이 잘 안된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애국 자연한다.¹¹⁾

그러나 위 인용에서 보듯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작품 속 인물들에게 1960년대 한국은 자신들의 가능성을 펼칠 공간이 못된다. 정치적으로 불안한데다 산업의 규모가 매우 영세한 까닭에 인재 효용성이 떨어져 “인재 소화불량증”으로까지 이야기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¹²⁾ 특히 경제학을 전공한 문휘에게 한국은 여전히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후진적 행태를 보이면서 문휘 자신이 자신의 야망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는 1960년 4.19 이후 5.16 쿠데타의 혼란이 채 가지지 않은 작품 내 한국사회의 상황 때문에 보다 부각된 측면이 있다. 결정적으로 문휘가 외무부 사무관 출신이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그에게 가능성으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쿠데타 정국 이후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유학생 출신이라 해도 큰 연줄이 없는 그로서는 나라의 정치적 형세에 따라 그의 운명이 요동치게 된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11) 손장순 문학전집 1, 『한국인』, 상, 82~83쪽.

12) 위의 책, 83쪽.

정세가 한 인물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 도로 닫았다 하는 상황 속에서 문회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기어이 입신출세 하고 말리라는 욕망에 가득 차 있다. 어지러운 정도로 급변하는 정세는 오히려 등장인물들에게 큰 기회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는 정치가 온 사회의 주요 의제를 쥐고 있던 쿠데타 정국이 갖는 분위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난 미국식 개인주의에 철저하게 혐오厭惡를 느끼고 돌아온 사람이야. 한국의 고유한 정서에 대한 향수를 안고 돌아왔지만, 이곳에서도 인정이 메 마르게 돌아가는 품이 이미 그런 것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졌어. 따라서 그곳에서 미국화한 여성들이 겁이 났던 것처럼 이곳 여성들도 난 두려운 거야.¹³⁾

특히 문회의 경우 유학을 경험했음에도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그의 정신세계만은 아직 한국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추구한다는 데서 이후 희연과의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짐작하게 된다. 유학한 남성들이 오히려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로 회귀하며 가부장적 질서를 고수하려는 반면, 희연을 비롯한 여성 인물들은 그 가부장적 질서를 벗어난 부부 본위의 가정을 자신들이 꾸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미국)-정신(한국)’이라는 이분화된 틀 안에서 자기 모순을 견뎌야만 하는 것은 비단 문회만은 아니다. 비슷한 처지의 유학생 출신 친구들은 다방 “초원”에 모여 “초원”을 “한국 사회에서 암암리에 돌림을 받는 외롭고 피곤한 영혼들이 모여서 위안을 주고받는 곳”으로 이야기한다. 이들 유학생 출신들이 “초원”을 “한국의 이방인 아닌 이방인 지대”¹⁴⁾라 자조하면서 자신들을 ‘끼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장면들은 눈

13) 손장순 문학전집 1, 『한국인』 상, 푸른사상, 2009, 92쪽.

14) 위의 책, 91쪽.

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희연과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한영주’ 또한 자신의 영어명인 ‘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름도 튀기지. 마치 나의 생리가, 우리 사회가 아메리카니즘과의 혼합물이듯이, 한은 나의 성 그대로이고 쑤는 그들이 편리하게 불러 주던 이름이야.”¹⁵⁾라고 자조한다. 이들의 이같은 좌절은 일차적으로는 자신들의 유학 경험과 경륜을 수용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규모와 후진성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높아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감내할 수 없는 그들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상당히 모순적이고 복잡한 그들의 태도를 낳게 된다. 자신이 속하고 싶은 곳과 실제 속하는 곳이 불일치하면서 그들은 극단적 자기과시와 자기 비하 사이를 넘나든다.

이는 ‘숫제 변수용 휴지면 휴지지, 어줍지 않게 토이렛 페이퍼야, 엽전 주제야’¹⁶⁾라는 ‘혜미’의 혼자말¹⁷⁾에서 보듯 ‘엽전’¹⁸⁾이라는 자조적 단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엘리트와 엽전의 양 극을 넘나들 수 밖에 없는 데서 그들의 비극은 촉발된다. 엽전으로 대표되는 고국 한국의 후진성에 대해서는 자조하며 외부자이고 싶지만, 촉망받는 인텔리로서는 고국의 심장부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내부자가 되기를 욕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유학중 그들은 내부자가 될 수 없는 외부자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그들의 내부자 되기는 사실 어떤 경우에서든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다녀와서 더 고답적인 비참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눈만 살찌고 현실에 무용한.”¹⁹⁾으로 일갈하며, 희연이 프랑스 유학을 깨끗

15) 위의 책, 112~113쪽.

16) 손장순 문학전집 2, 『한국인』 하, 푸른사상, 2009, 230쪽.

17) 이 말을 내뱉은 혜미야 말로 희연의 오빠인 ‘관휘’와의 이혼 후 탈출구로서 미국 유학을 욕망해왔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18) ‘엽전’이라는 단어의 실제 쓰임에 대해 당시 잡지에서 그 자조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글이 있어 참고해 볼 만 하다. “지금 우리가 속어로 엽전이란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사전 속에서는 ‘한국 사람이 아직 봉건적 인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자학은 물론이요, 경멸, 학대, 체념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겠다.” 임동현, 『特輯 에세이, 言語로 본 韓國人의 自嘲心理』, 『세대』, 1965, 12, 228쪽.

하게 포기한 것으로 그려지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 물론 희연이 유럽에 기반한 지적 배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보다 눈여겨봐야할 부분이다. 같은 나라 밖 외국 입에도 유럽-미국은 여러 모로 유의미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이 거듭 강조된다. 미국은 물질문명과 새 질서가 꽃피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정신세계에서는 유럽에 한참 미달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아메리카니즘이구나. 상송조차 재즈화되어 가다니. 아메리카니즘이란 이 거센 조류 속에서 어지럽게 자라온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한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 어째서 우리는 자기의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없나. 자기의 것이 풍부한 사람만이 나의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아닐까. 강한 자기 확립이 타협에 빠르듯이. 문휘 같은 사람이 한국의 상태인지도 몰라. 그 애매모한 혼란과 불확실성과 착란 같은 것이.’²⁰⁾

그리고 이런 아메리카니즘이 점점 그 영향력을 강화해가는 모습은 ‘상송의 재즈화’라는 말로 단적으로 표현된다. 상송(유럽)-아메리카니즘(미국)의 각축을 벌이는 한국에서 등장인물들은 자연스레 한국의 위치와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되짚어 본다. 한편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자기를 잃어갔던 문휘의 모습은, 그런 문휘를 동정하면서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희연의 위치와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이는 희연의 다음과 같은 세대론적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다. 아니, 우리 세대의 생리다. ‘가고파’나 ‘산유화’가 우리의 생활에 밀착된 것이듯. 6.15 전쟁시에 들던 팻 분의 ‘투 영’이, 그 술한 재즈가 우리의 절실한 정서의 어엿한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

19) 손장순 문학전집 1, 『한국인』 상, 푸른사상, 2009, 59쪽.

20) 손장순 문학전집 2, 『한국인』 하, 푸른사상, 2009, 190쪽.

나 물밑 듯이 쏟아져 들어온 외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원서를 읽고 자란 우리의 혼합된 높은 의식과 감각과는 달리 생활은 아직도 판에 박은 듯 고루하고 인습에 젖어 있다. 아니, 내가 부딪힌 운명이 그러하기에 더욱 불행한 것이다. 나의 지성으로 어쩔 수 없는 인습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아니,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것은 좀더 역사적이다. 과도기에 있는 우리만 희생될 뿐이다.’²¹⁾

한편 이 지점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희연을 통해 작가가 아메리카 니즘과 속물성의 대척점에서 유럽의 교양을 위치시키고 있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²²⁾ 손장순의 소설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양 있는 인물들이 대체로 고평되는데, 부부간의 갈등 또한 교양 있는 인물과 이를 이해 못하는 인물들이 일으키는 것으로 그려진다.²³⁾ 특히 소설 속에서 교양을 갖춘 것으로 그려지는 인물들은 음악과 미술 등 두루두루 식견을 가진데 더해 몸가짐과 옷맵시까지 중요시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전통적인 상류계층인 우리네 양반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지하듯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한국사회에 ‘교양’이 새롭게 문제시되던 때이기도 했다. 문화나 예술, 에티켓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교양이 요청되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서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교양을 갖춘다는 것이 사실상 특정 수준 이상의 유한계급 안에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교양을 갖춘다는 것은 특정 계급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따라서 경제

21) 위의 책, 191쪽.

22) 손장순이 속물성에 대해 교양을 내놓은 지점에 대해서는 이지현의 논문(『손장순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이 주요한 지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23) 진여사는 남편의 속물성 때문에 느끼는 불만이 그녀의 불행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선비 집안의 학자적인 분위기와 아취雅趣 속에 젖어 자라난 그녀는 결혼 당시 너무나 이질적인 남편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실망과 불협화음을 겪어야 했다. 손장순 문학전집 4, 『세화의 성』-상, 푸른사상, 2009, 37쪽.

적 차원에서 교양을 갖춘만한 여력이 되지 못한 계층들에게까지 교양에 대한 욕망이 피어올랐다. 때마침 발전하기 시작한 미디어들은 여러 취향과 교양의 표본을 제시해주는 좋은 장(場)이 되었으며, 국가정책에 의해 이같은 지점들은 더욱 강화되었다.²⁴⁾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의 교양주의는 필연적으로 ‘속물’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식 자본주의는 이런 ‘속물교양’의 탄생을 보다 가속화하였다. 즉 속물과 교양은 ‘짜페’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속물의 본질을 그가 종속되어 있는 사회의 욕망의 메커니즘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²⁵⁾ 또한 이런 점에서 음미해야 한다. 특히 여성과 교양주의는 보다 문제적 차원에서 결합되기도 했는데, 현모양처로서 갖춰야 하는 교양이 강조되는 맥락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²⁶⁾

이 시기 손장순의 작품들이 소위 부르주아 계층을 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교양주의와 견주어 볼 부분이 있다. 그리고 손장순의 작품들 속 인물들 중 상당수가 이 속물 교양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자칫 당대 교양주의의 맥락을 재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손장순에게 있어 당대 사회 속 교양은 비판의 대상이며 자신이 추구하는 교양과는 차별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손장순의 교양은 아메리카니즘이 아니라 유럽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물론 이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작가는 Bildung으로 대표되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문화의 교양의 전통을 폭넓게 포함하면서 한국의 전통적 상

24) 이 당시 교양주의와 독서 열풍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권보드래·천정환, 『8장 자
기계발 혹은 실존을 위한 책읽기』, 앞의 책, 참조.

25)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87쪽.

26) 여성과 교양주의가 결합되는 양상과 관련하여서는 김은하, 『여성의 교양화 과정과
젠더화된 글쓰기의 이중 전략-60년대 여성 잡지의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인문
과학연구』 제31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2013.2;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명의 인식과 교양여성 담론-여성독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 2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6;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참조.

류층인 양반의 정신세계 또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손장순에게 있어 내면의 교양만큼이나 포기할 수 없는 자질로서 외양도 중요시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손장순의 교양주의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서구, 정확히는 영국에서 탄생한 ‘덴디’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물론 덴디는 그간 남성에게만 국한되어 논의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덴디가 단지 고전적인 귀족이랑은 다른 성격을 지닌 근대적 의미에서 ‘신사’와 교양인이라는 점과, 두 가지 상이한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성별을 초월하여 손장순 소설 속 인물들과 손장순이 지닌 교양주의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덴디는 한 편으로는 우아함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별의 욕망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무심하게 세상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의 구별의 욕망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덴디가 존재하는 방식은 여러 뉘앙스, 달리 말해 다양한 욕망으로 구성된다고 지적된다. 이런 덴디에게 있어 외양은 곧 내면이며, 구별의 욕망은 덴디가 지닌 삶의 양식에 대한 욕망이다.²⁷⁾ 즉 덴디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천성적 아웃사이더이며 이런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데에는 외양의 우아함으로 표출되는 교양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언뜻 덴디는 아름다운 용모를 중요시한다는 데서 오히려 속물적인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를 결정적으로 다른 존재들과 구별시키는 것은 예술적인 내면인 것이다.

손장순 자신을 비롯하여 손장순 소설 속 인물들, 특히 여성인물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냄에 있어 강한 자존감에서 비롯한 당당한 태도와 함께 외적으로도 뛰어난 감각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급조된 속물적 교양의 천박함과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위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지 기존 사회의 윤리와 도덕에 냉소적 거리를 둔다는 점과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덴디의 정신과 깊게 맞닿아 있다.

27) 조은라, 「덴디즘-이념과 형식의 철학」, 『프랑스문화예술연구』 41집, 2012, 421쪽.

특히 제대로 된 교양을 갖추지도 못하고, 출세의 기회만을 엿보는 속물적 남성인물들과 달리 여성인물들이 덴디의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희연은 앞서 유학생 출신들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외부자적 존재일 수 밖 없음을 강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면모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결국 가정 생활을 박차고 나옴으로써 스스로 외부자이기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작품 속 다른 인물들과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외부자의 위치가 갖는 해방감과 의미를 인정함으로써 희연은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물론 결혼 전 ‘결혼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일갈하면서 여러 남성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즐겼던 희연이 얼핏 ‘아프레겔’의 모습을 지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선택은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어머니 ‘민씨 부인’과의 관계에서 보듯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한국적 가치를 한편에 내재하고 있던 모순적 존재였으며, 이혼만은 되도록 피하고자 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큰 변화인 것만은 사실이다.²⁸⁾

희연의 절친 쉰 한 또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의 목적을 ‘보이 헌트’가 주 목적이라고 일갈 하면서, 미국은 ‘낙오자 수용소’라 말하고 있음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쉰 한 또한 공간을 달리하여도 이방인이자 외부자일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 채 새로운 삶의 설계를 시도하는 것이다. 결코 어느쪽에 있어도 완전히 내부에 위치할 수 없다는 점, 태생적이어서든, 상황에서든 이들이 한사코 외부자적 관점을 견지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극은 탄생하는 것이지만 희연의 경우에서 보듯 하나의 가능성이기도 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희연은 작품 속 여느 여성인물들과는 달리 이민이나 국외 탈출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애국심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외부자이자 이방인으로서 관찰의 시선을 갖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식인 여성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²⁹⁾

28) 이런 점에서 손장순 문학에서 아프레겔의 시선을 적용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손장순이 속물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같은 유럽식 교양도 한편으로는 당시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 풍조를 ‘후진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선진국’이라는 표상 위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탈식민적 접근을 요한다. 그러나 당시 1960-1970년대가 보수적인 차원에서 교양을 학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전통과 서구 전통의 교양 개념을 상기시키는 작가의 태도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3. ‘속물’의 세계에서 외부자(아웃사이더) 되기

앞서 짧게 언급한 바 『세화의 城』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박정희 시대’ 상류층의 한 단면을 세태소설의 틀을 빌려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등장인물들 간 얽히고 설킨 연애 관계에 대한 꺾진한 묘사와 권력을 둘러싼 암투와 주요 등장인물인 ‘범호’의 파멸과정 등은 다소 통속적인 색채를 띄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통속성과 부박함, 불안정성이야말로, 막 경제 개발의 시동을 걸던 ‘박정희 시대’의 본질을 정확하게 투시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성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세화의 城』이 그간 본격문학 장 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다소 선정적이고 통속적인 소설적 상황과 인물들을 잘 분석해낼 적절한 소설적 독법은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자신의 욕망에 뻘뻘하리만큼 충실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류층으로의 편입을 시도하는 ‘지범호’는 한국판 ‘줄리앙 소렐’³⁰⁾이라는 단순한 비교적 접근만으로는 충

29) 사실 이런 외부자적 시선은 손장순이 프랑스에 다녀온 이후 발표한 작품들과 기행문 모두를 살펴본 이후에 보다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30) 이는 손장순 자신의 언급이다. 『“내 문학의 힘은 열정과 솔직함이다”(인터뷰)』,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56쪽; 또한 줄리앙 소렐은 근대 소설 속 속물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로 지적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김홍중, 앞의 책, 86쪽.

분치 않다. 범호를 욕망에 가득찬 일탈적 개인으로서만 바라보는 것 또한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오히려 협잡을 통한 신분상승이 횡행하고, 범호라는 인물형이 활동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맥락에서 작품을 세심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풍속’과 ‘세태’라는 말로 뭉뚱그려진 당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이 남기고 간 상흔이랄까, 우린 전쟁의 간접적인 체험만 가지고도 그 부작용은 무섭게 커요. 그것은 우리의 체내에 독버섯처럼 번식하여 어엿한 일부분이 되어 있어요. 전쟁 속에서는 어떤 권위도 기존의 가치도 허무했어요. 우린 지금 아무런 신조도 없이 살고 있지 않아요.”³¹⁾

6.25가 끝난지 10여년이 흐른 1960년대 중반이지만, 전후 한국사회의 주요 (의식) 흐름이었던 실존주의와 ‘아프레게르’한 분위기가 아직도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 있었음을 작가는 희연의 입을 빌어 위와 같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같은 분위기는 ‘남의원’에 의해 ‘아노미 상태’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당시 한국사회는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찾고 있던 가치의 혼란 시기였으며, 새로운 가치의 자리는 배금사상과 권력욕, ‘마키아벨리즘’ 등으로 채워져가고 있던 참이었으며 관건은 누가 더 철저하게 속물이 되느냐였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남자는 사회적 동물이거든. 야망, 파워…… 이런 것들은 현대의 상징이지, 왜냐하면 우린 우리의 나라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은 지 겨우 이십 오년이거든, 미국의 서부 활극을 보면 개척하고 돈을 버는 의욕이 왕성했듯이 우리도 이제 겨우 시작하고 벌여 놓는 등 개척할 여지가 많다는 것은 남자들의 의욕과 야망을 충분히 자극하거든. 부정부패니, 사회의 부조리, 기업상의 악

31) 손장순 문학전집 1, 『한국인』 상, 푸른사상, 2009, 39쪽.

덕 같은 것도 과도기적 문제이고, 사회 그 자체가 원래 욕망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지. 여럿이 모여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서 각종의 욕망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³²⁾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 인용에서 보듯 당시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상은 오히려 특정 인물들에게는 기회로 비춰진다. 정치적 과도기와 아직 미발전된 경제상황은 『한국인』에서 구호물자를 둘러싸고 한 몫 챙기려던 “김도수”와 같은 인물형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즉 당시 한국사회는 정체되고 안정된 사회보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장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스눴(속물)이 위계적 신분질서가 파괴된 후 시민사회가 재구성되는 맥락에서 등장한 인물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³³⁾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시기 지식인들은 생각보다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4.19 혁명 이후 다소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줄 무언가의 타개책을 고심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혁명과 쿠데타도 일종의 로맨티시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기력하다는 것은 패배와 비현실성을 의미해요. 군은 조직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직의 힘이 사회의 혁신을 위한 저항으로 분출할 때 얼마든지 혁명이 가능한 일이죠. 말하자면 극과 극이 공존해요.”³⁴⁾에서 보듯 혁명과 쿠데타를 낭만적 시선으로 보면서 사회적 도약의 시기로 보는 시선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쿠데타가 끝난 그 시점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다소나마 짙게 깔려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후 한국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의 물살을 타게 되면서 오히려 그 흐름을 잘 탄 특정 인물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197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계층 간 이동이 적어졌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호를 비롯한 남성 인물들은 사회의 혼란이 갖는 틈새가 가진 가능성을 십분 활

32) 손장순 문학전집 4, 『세화의 城』 상, 푸른사상, 2009, 116쪽.

33) 김홍중, 앞의 책, 83쪽.

34) 위의 책, 117쪽.

용한다. 여기에는 손쉽게 자신의 처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결혼과 연애가 포함된다. 우수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성장과정에서 열등감을 갖고 있던 범호는 그 반대급부로서 한국사회, 정확히는 권력의 핵심의 내부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는 헌신적으로 자신을 뒷바라지한 첼리스트인 ‘세화’를 버리고 현직 장관의 딸인 ‘유란’과 정략적으로 결혼한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화의 城』 속 남성인물들은 대부분 권력의 핵심 내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에서 결국 몰락하고 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에 반해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오히려 제도와 사회의 외부자나 경계인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는 물론 여성인물들의 ‘각성’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남풍훈’ 의원의 비서였다가 남의원이 세화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버려진 ‘묘진’은 작가를 꿈꾼다. “그 무한한 자유(사고와 판단과 행동의)와 성실한 고백과 위대한 증언(사회에 대한, 그리고 진실의). 그것 이상 가능 멋있고 강한 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³⁵⁾에서 보듯 묘진에게 작가야말로 경계인이자 외부자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인 것으로 여겨진다. 남풍훈과 범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던 세화는 임신과 낙태, 이혼을 거치면서 예술(첼로)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다.

물론 이들의 시도를 결코 순탄하게만 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묘진은 결국 자살을 선택하며, 유란은 승려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세속과의 단절을 꾀한다. 세화 또한 미국 유학을 경유해야만 성공한 첼리스트로 거듭날 수 있었다. 특히 세화가 마침 발의된 국가비상사태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즉 철저히 한국적인 것(박정희 시대)과 거리를 두어야, 그리고 ‘예술’ 안에서만이 성취는 가능한 것인 셈이다. 작품의 이같은 결말에서 여성 인물들이 당대 한국 사회에서 외부자이자 아웃사이더의 길을 견지한다는 것은 현

35) 손장순 문학전집 4, 『세화의 城』 하, 푸른사상, 2009, 70쪽.

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인물의 이같은 면모에서 이혼 후 작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제 손장순은 작품과 산문들을 통해 사회의 아웃사이더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가부장적 질서, 권력, 욕망 등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 자신을 두고 “나도 어쩌면 반감이란 노이로제에 걸려있는지도 모른다”³⁶⁾고까지 언급하기도 한다. 의식 있는 지식인 여성의 아웃사이더 경향은 그리 낮설지만은 아닌데, 1937년 출생하여 1965년 사망했지만 이후 유희집을 통해 시대의 아이콘이 된 전혜린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³⁷⁾ 세대론적 관점에서 전혜린과 손장순을 비견해 볼 때 흥미로운 지점들이 발견된다.

전혜린 평전 작가인 이덕희는 전혜린의 일생을 “부르주아적 질서에 도전하는 아웃사이더적 유형의 삶의 투쟁이란 각도에서 다루었”음을 밝힌 바 있다.³⁸⁾ “내 속의 속물(俗物)을 미리 공포스럽게 혐오하자. 언제나 너 자신이어야 한다. 아무 앞에서도, 어디에서도”라는 일기를 남긴 전혜린은 속물성에 저항하며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내려했던 자세로 말미암아 1960년대적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었다. 물론 일기나 산문에서 드러나는 파격적 태도와는 달리 실제 전혜린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독일 유학까지 거쳐 대학에 자리잡은 엘리트 여성이었으며, 이혼 외에 특별히 기존 사회의 규범을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평전 작가가

36) 손장순 문학전집 12, 『이룰 수 없는 서원』, 320쪽, 1985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주제 발표문이었다.

37) 서은주는 최초로 ‘전혜린 신화’에 주목했다. 그는 전혜린의 신화가 “그녀의 문학적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승인에 근거한 결과라기보다 그녀의 삶과 죽음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세간의 호기심, 선망과 결합하여 확산되었다”고 보면서, 주변성에 머문 문학성의 의미에 주목한다. 전혜린 문학의 주변성은 한국문학이라는 제도의 보수성과 편협성에 의해 배제된 결과이며, 전혜린의 서구적 정신주의, 금욕주의 태도는 당대 한국사회의 속물성에 저항하는 방어기제라는 것이다.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8) 이덕희, 『전혜린』, 이마고, 2003(초판은 1982년 『그대 이름은 전혜린』이란 제목으로 홍성사에서 발간된 바 있다) 13쪽.

강조하듯 그를 인습과 도덕의 타파를 부르짖고 시대의 선구자로 자처한 여성 선각자의 계열에 놓으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임은 사실일 것이다.³⁹⁾ 다만 전혜린에게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60년대 한국에서 외국 문학을 전공하고 외국 유학 경험을 가진 여성의 자리가 갖는 의미이다. 즉 사상적으로 영원히 외부자이자 경계자일 수 밖에 없는 그의 위치는 다분히 1960년대적인 것이다.

전혜린보다 훨씬 오랜기간 문단생활을 지속했던 손장순은 이같은 아웃사이더 의식을 자신의 전공인 불문학 연구를 통해 보다 정문화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특히 손장순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이 집단이나 획일화될 수 가능성이 있는 사상을 일생동안 극도로 경계한 바 있는데, 그가 고평했던 작가들에 대한 작가의 논의를 통해 그의 사상을 보다 정밀히 살펴 볼 수 있다.⁴⁰⁾

손장순은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인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에 대한 몇 편의 연구를 남겼다.⁴¹⁾ 손장순에게 시몬느 베이유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수호하고,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등 일체의 모든 집단악을 혐오하고 거부한 자세를 통해 고평된다. 즉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통제되는 사회를 극도로 비판한 시몬느 베이유에 대한 옹호를 통해 손장순의 아웃사이더적 지점도 부각된다. 나아가 손장순은 시몬느 베이유가 당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환상’을 가졌던 것과 달리 공산주의와 소련 사회가 ‘억압과 착취의 기구’였음을 간파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⁴²⁾ 같은 맥락에서 조지 오웰(George Orwell) 또한 고평

39) 위의 책, 35~36쪽.

40) 장성규는 그의 글 「프랑스 문학 사상 수용과 손장순 문학」에서 이같은 지점을 프랑스 문학의 한국적 ‘전유’라는 관점에서 독해해내고 있어 본 논문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장성규, 「프랑스 문학 사상 수용과 손장순 문학」, 방민호 외, 『아프레게트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

41) 손장순, 「시몬느 베이유의 思想과 그 現代的 意味」, 『인문논총』, 1984; 손장순, 「시몬느 베이유와 조지 오웰의 思想에 대한 比較分析」, 『불어문학연구』, 1985.

42) 시몬느 베이유의 정치·사회 사상의 중요한 기조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수호에 있다. 그것은 이미 기술한 그녀의 노동관, 불행론, 종교관에서도 엿보이지만 공

된다.

베이유와 오웰의 특이한 선견성은 무엇보다도 동시대의 누구보다 앞선 시기에 개인의 자유· 지적 성실을 억압하고 인간을 노예화하는 전체주의와 권력 및 집단의 실체를 통찰하고 폭로한 점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인간다움을 훼손시키고 인간의 정신을 속박하는 모든 외적· 내적 편견, 선입견, 도그마를 배척하고 거부한 정의감과 진실을 모색한 자유정신이였다. 그리고 그것은 약자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었다.⁴³⁾

공산주의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차치한다면, 베이유와 오웰을 호명하는 손장순의 이같은 행위는 속물성과 권력, 집단주의 등과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아웃사이더적인 의식의 철저함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크게 집단주의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하던 한국사회를 베이유와 오웰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손장순은 시몬느 베이유에 자신의 이미지를 동일시 하거나 덧입힘으로써 아나키즘적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을 이상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손장순 또한 출산과 재혼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정을 유지해나갔고, 그의 글 곳곳에서 주부에 대한 언급 등에서 보듯 다소 보수적인 언급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탈사회를 지향한 아나키스트이자 외부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손장순의 일찍이 ‘결혼은 비즈니스’라 일갈하면서도 그가 속해 온 한국의 정서적 전통 또한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그의 현실주의적 면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등 일체의 모든 집단악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기할 것으로는 동시대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공산주의에의 환상에 빠지지 않고 공산주의와 소련체제가 반인간적인 사상이며 억압과 착취의 기구임을 일찍부터 간파했다는 점이다. 『이룰 수 없는 서원』, 253~254쪽.

43) 손장순 문학전집 12, 『이룰 수 없는 서원』, 289~290쪽.

이렇듯 작가는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외부자의 길을 견지하면서 당시 욕망으로 들끓던 한국 사회 전체를 우회하는 시선을 획득하고자 한다. 불륜과 가정 폭력, 자살, 등 다소 선정적인 상황이 제시되면서 이 당시 손장순의 작품들이 자칫 통속 소설로만 읽힐 수 있겠으나, 이 모두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60-1970년대 한국이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후 중산층의 확대로 인해 보수적인 여성상인 현모양처가 부각되고, 이전 시기보다 경직되고 화석화되던 한국사회에서 손장순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이같은 행보는 새삼 주목되는 것이다.

4. 한국 밖에서 한국 안 바라보기, 한국 안에서 한국 밖 상상 하기

앞서 손장순의 이같은 아웃사이더 의식과 경계인적 태도는 이런 시각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경험들을 통해 더욱 강화되게 된다. 한국에서 해외행이 자유화되기 이전 1974년 세계일주를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또한 같은 해에 시작하여 일 년간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연구 차 파리에 일 년간 체류할 기회도 부여받게 된다. 한국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선이 포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손장순의 글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앞서 작품들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를 상상했었던데 비해, 실제 외부를 경험한 후 작가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핌으로써 당시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통찰하는 시각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시기 작품들을 섬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기행산문집이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시기도 1960-1970년대였다. 여러 명의 문인과 지식인들이 한국 밖으로 나갔고 해외를 주유한 경험들을 산문으로 남겼다.⁴⁴⁾ 앞 장에서 논의한 여성 지식인인 전해

44) 이 시기 지식인들의 기행산문을 성차와 각 인물들의 특성을 통해 고찰한 논문으로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50, 2013, 참조.

린의 유고집(『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원출판사, 1966)은 기행산문의 측면에서 이미 1960년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었다. 전혜린의 산문에서 서술된 독일 뮌헨의 낭만적 거리풍경은 ‘뉘’을 상상하는 눈길로 문화적 불모지인 한국현실을 직시하여, 이를 극복해야겠다는 대중적 각성을 낳았다. ‘뉘’을 상상하는 시선은 ‘안’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는 법으로, 이들 기행산문집에 대한 당시 독자대중의 열광은 국제사회 속 ‘우리’의 위상과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동시대 한국대중의 내적 욕구의 다른 표현으로 지적된 바 있다.⁴⁵⁾

1960-70년대 남성지식인들의 세계여행과 그 기록물로서의 기행산문집이 내셔널미디어적 성격이 농후하고 매우 현실적인 문화담론의 한 영역이었다. 이에 비해 손장순을 포함한 전혜린 등의 여성 작가들의 기행산문집은 다소 차별점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전혜린의 경우 미국이 아닌 독일 뮌헨이었다는 점, 손장순 또한 여러 국가를 두루 여행한 후, 길게 체류한 곳이 파리라는 점에서 아메리카니즘의 자장 안으로 빠르게 포섭되어가던 한국의 상황과 다소 거리를 둘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혜린의 기행문은 특정한 지역(뮌헨)에 한정되어 있고, 다소 과장된 이상화가 특징으로 지적된다. 특히 보편적 존재조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전혜린의 기행산문집에는 한국, 한국적, 한국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가 묘사한 뮌헨의 분위기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결여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런 의미에서 전혜린의 글들이 비역사적이며 무국적적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게 됨은 이미 적절하게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손장순의 경우는 보다 직설적인 표현이 돋보이며, 센티멘탈한 여수가 강하게 드러나 있으면서 타자에 대한 호오 또한 분명한, 극단적인 시각의 공존이 특징이라고 지적된다.⁴⁶⁾ 물론 가부장제적 남성중심의 문

45)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50, 2013, 11쪽.

46) 위의 글, 24쪽.

화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 대한 여성엘리트의 비판적 인식과 유럽의 선진문화에 대한 선망의 시선도 함께 보여지고 있음은 물론이다.⁴⁷⁾ 그럼에도 아직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밖에서 주체적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해외 기행은 효과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구인들의 시각과 자신의 시선을 동일시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과 옥시덴탈리즘적 인식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점은 문제적이다. 아프리카나 인도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을 여행하는 중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상황에 혐오감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파리 체류 이후 발표한 「우울한 빠리」(『현대문학』, 1976.1)의 경우 프랑스에서 유학중인 '묘선'이라는 여성을 통해 작가 자신이 그간 견지했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어 다소 변화된 지점을 보여준다. 프랑스령 아랍 국가로부터 유학 온 유학생들을 프랑스인들과 똑같이 은연중 경멸하던 묘선이 그간 자신이 견지했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되돌아보고 프랑스인들의 '에고이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묘선은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거리를 유지하며 철저히 외부인으로 자처하던 참이었다. 불문학 전공자로서 은연중 프랑스와 자신을 동일시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제3세계일 수 밖에 없는 조국의 위치를 자각하는 묘선의 모습은 손장순의 그것과 겹쳐진다. 묘선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작가가 그 자신마저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작품 이외에도 해외 체류 이후 발표한 소설들에서 파리를 비롯한 서구 문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74년도에 오지에서 오지로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후에 불란서 정부 초청을 받고 파리에 일 년간 체류해 있는 동안 서구 문명의 퇴락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것은 어찌보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한계요, 병폐인지도 모른다. 서구의 소설은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을 정도로 주조主潮가 없이 방황하

47) 위의 글, 28쪽.

고 있었으며 재미있는 소설이나 새로운 미학이나 문제성이 있는 테마도 나올 만큼 다 나와서 논픽션이나 TV드라마에 많은 독자를 빼앗기고 있다.⁴⁸⁾

위의 인용(물론 1984년에 발표되어 해외 체류 시기를 회고하고 있는 것이지만)에서 손장순은 철저히 경계인과 외부자의 시선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견주고 있다. 나아가 그나마 아메리카니즘의 속물성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여긴 파리마저도 그 사상적 생기를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외부적 시선을 획득한 후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더욱 치밀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이후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 까닭에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가고 있음에도 작가의 눈에 그 후진성과 폐쇄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문제로 인식된다. ‘박정희 시대’가 노정하고 있던 ‘천박한 자본주의’가 갖는 본질적 문제점은, 이같이 그 길을 먼저 걸어난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적되기에 이른다.

5. 손장순과 그의 시대 그 이후

본고에서는 손장순의 1960-1970년대 소설과 산문들을 통해 그간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의 작품들을 시대적 맥락 안에서 재독하고자 했다. 앞서 해외 기행과 파리 체류를 통해 외부자적 시선을 보다 철저히 경유한 손장순은 이후 ‘산악소설’의 창작을 통해 한국 문학 속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으로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려 한다. 알피니스트였던 친오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이 작품들을 통해 한국이 갖는 문제적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손장순이 특히 공산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현대문학』을 통해

48) 손장순 문학전집 12, 『이룰 수 없는 서원』, 푸른사상, 2009, 31쪽, 1984년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이테리 나폴리대학 동양학부 초청 강연 글이다.

주로 활동한 점은 그녀가 스스로 외부자로서 자처했음에도 크게는 한국 사회가 규정한 큰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산악소설계열에까지 이어지는 스케일 큰 그의 작품 세계는 손장순이 일평생 추구해 온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주제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이후 박완서 등 중산층의 심리에 묘파해냈던 여성작가들의 중산층 서술과 지식인상의 제시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세대론적 입장에서 손장순이 동시대 작가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고백한 바 있는 여성작가들과의 적극적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한말숙 등 흔히 통속소설을 창작한 것으로 논의되는 작가의 작품과 손장순 작품의 통속성 연구는 박정희 시대 문화 풍속의 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경리 등의 여성작가들의 여성형상화와 문학적 성취를 통해 1960년대 1970년대 한국사회의 격변기를 재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프레길과 1980년대 중산층 문학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사의 특정 시기를 보다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손장순, 「시몬느 베이유의 思想과 그 現代的 意味」, 『인문논총』, 1984.

손장순, 「시몬느 베이유와 조지 오웰의 思想에 대한 比較分析」, 『불어문학 연구』, 1985.

손장순, 『손장순 문학전집』 1~15, 푸른사상, 2009.

2. 단행본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79~103쪽.

권보드래·천정환, 『1960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406~416쪽.

방민호 외 공저,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8~386쪽.

이덕희, 『전혜린』, 이마고, 2003, 35~36쪽.

3. 논문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50, 2013, 9~33쪽.

김은하, 「여성의 교양화 과정과 젠더화된 글쓰기의 이중 전략-60년대 여성 잡지의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1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2013.2, 65~95쪽.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명의 인식과 교양여성 담론-여성독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6, 147~180쪽.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3~56쪽.

이지현, 「손장순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임동현, 「特輯 에세이, 言語로 본 韓國人의 自嘲心理」, 『세대』, 1965, 12, 220~240쪽.

임정연, 「여성의 이국 체험과 감성의 지리학」, 『이화어문논집』 33집, 2014, 53~73쪽.

조은라, 「댄디즘-이념과 형식의 철학」, 『프랑스문화예술연구』 41집, 2012, 413~437쪽.

Abstract

The (Im)possibility of Becoming an Outsider as a (Women)intellectual

- A Study on Sohn Jang-Soon's Works

Kim, Woo-Young

In this paper, it looks to be a writer called attention to yichaeroun pace Sohn Jang-Soon(손장순) in the literature section of the "Park Chung-hee era". Works published in the 1960-1970 Korean Sohn Jang-Soon 『한국인』(1966), a high resolution 『세화의城』(1971), including the 「우울한 파리」(1976), contained two years overseas stay experience Journey to Paris in 1974, Travel travels, prose etc. this will be the subject of discussion. Sonjangsun this period is noted by the intellectuals suffer from conflicts between the outsider and society in Korea juryucheung're shaping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is period South Korea. Especially interesting in that it maintained a critical eye to work in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are bypassing the Park Chung Hee era contemporaries in mind that experiences abroad are highly educated intellectuals, including women abroad figures.

Key words : Outsider, Abroad Travel, Americanism, The Park Chung Hee Era(박정희 시대), Bildung, French Literature, Dandy

■ 본 논문은 2016년 3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4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